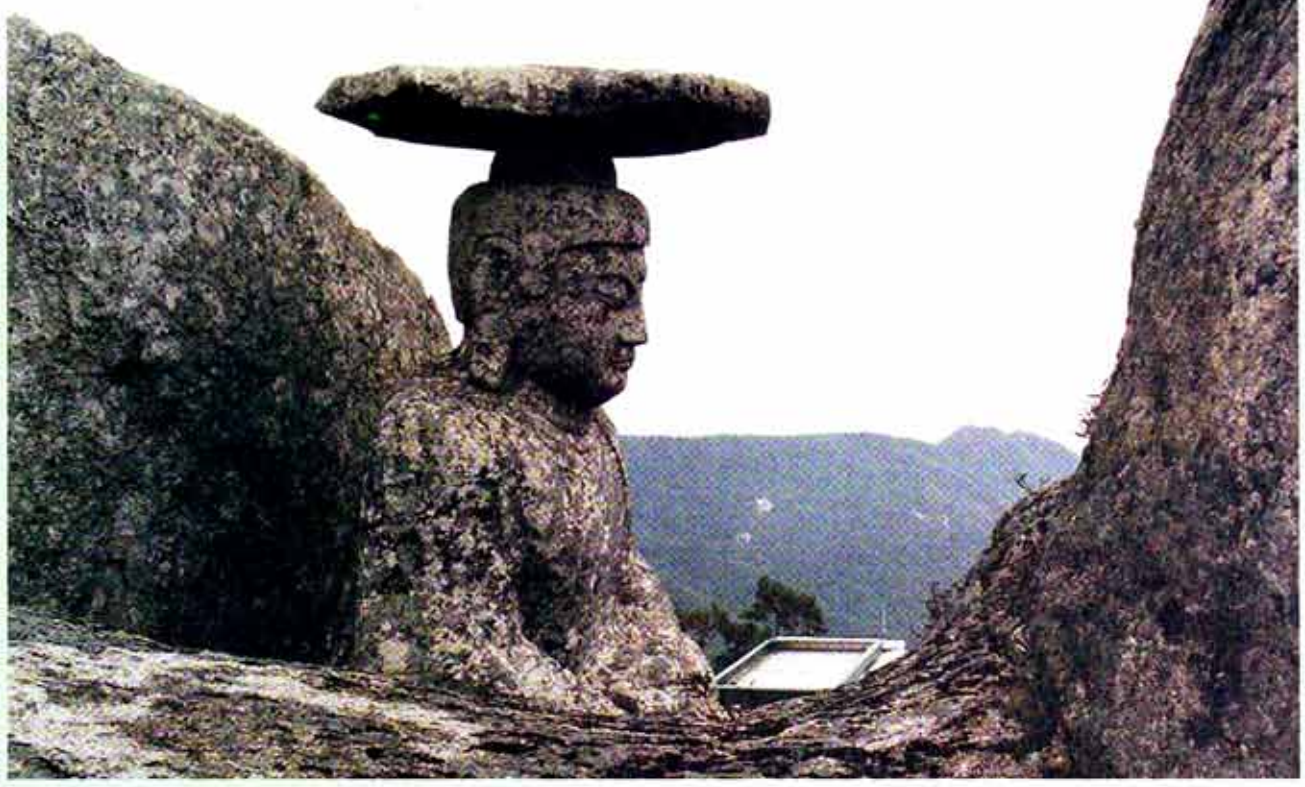
"부처됩시다" 천년세월 무정설법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6〉

돌

깊은 산 속 불법은
이 돌이어서
큰 돌은 크게 둥글고,
작은 돌은 작게 둥글고,
허구 부처님을 만듭답시고
공연한 짓 버랑 깨어
법신 상했네.
… 백운화상



▼ ◇자연석 그대로를 깎아만든 팔공산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보물 431호). IMF시대를 맞아 참배객 줄이 더 길어졌다.



◇부석사 입구에 서 있는 당간지주(보물 255호). 날아오르는 듯한 날렵함과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차디찬 돌에 법향 감도니…

마애불 자연석에 새긴 불보살
석 탑 불사리·경전 봉안 '경배'
부 도 스님들 사리 모신 승탑

험한 바위는, 그리고 깎아지른 저 바랑은 그대로 불멸의 가시적인 법신이다. 그런데 석수들은 무엇 때문에 이 천진무구한 순수를 포개고 깎아서 불상을 조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공연한 '짓거리'의 결과를 허기진 듯 찾아다니며, 예배를 올리는 것일까.

돌은 변하지 않는 견고함과 불변성에 더하여 창조력, 응결력 등 신비로운 권능을 지닌 존재로 인식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돼 왔다.

부처가 되리라는 꿈을 가꾸던 석수가 그 꿈을 이루어 바위 속에 숨은 부처님을 찾고 보니 바로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이라고 했던가. '돌부처의 모습은 석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지만 석불은 석수가 정으로 쪼아 만드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모습은 원래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부처님을 기리는 사람들이 바위를 쪼아 문을 여니 부처님이 할 수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아닐까.

우리 나라는 풍부한 화강암과 대리석 등을 이용해 불상과 석탑·석비·석등 등을 조성했다. 그 대표적인 산물이 석굴암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야 곳곳을 장엄하고 있는 마애불은 생명력을 지닌 바위로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결같이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다.

돌부처나 석탑은 어리석은 중생도 자성을 닦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의 상징물처럼 영원히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 금강계단(金剛戒壇)

불사리를 모시고 수계의식을 집행하는 장소. 수계자를 중앙에 앉히고 삼사(三師)와 칠증(七證)이 둘러앉아서 계법을 전수하는 곳이다.

금강이란 금강보계(金剛寶戒)에서 유래된 말이므로 금강과 같이 보배로운 계(戒)란 의미가 있다. 불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는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을 금강이라 하고, 금강과 같은 반야(般若)의 지혜로써 모든 번뇌를 물리칠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지혜는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삼학 가운데 계율이 으뜸이고, 계를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보존하는 데는 불사리를 봉안한 곳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금강계단이라고 한다.

■ 석불

일반 불상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종파와 신앙대상에 따라 석불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마애불은 오랫동안 불자들에게 자연스런 숭배의 대상이 돼 왔다.

마애불은 야외에서 자연석 그대로를 이용해 불보살을 새긴 것으로 수려한 자연속에 위치해 외경심과 경건함을 더욱 고취시킨다. 특히 팔공산 갓바위부처님은 약사신앙의 성지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8백50m에 달하는 이곳 팔공산 갓바위부처님을 참배 온다. 아미타불에게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관음보살에게 자비심을 구하고, 또 약사불에게는 치병을 기원해야 하겠지만 무명을 떨치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그저 모든 부처님이 모든 서원의 대상이 된다.

■ 석탑(石塔)

탑은 석가모니부처님 입멸 후에 사리를 모신, 일종의 묘(墓)이다. 부처님의 유해를 다비한 후, 그 유골을 당시 관계하고 있던 8개국에 분배했는데, 이를 보존하기 위해 탑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이것이 근본 팔탑(根本八塔)이다.

불탑에는 사리 외에 경전을 안치함으로써 진리와 기원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탑은 불상과 더불어 경배 대상이므로, 기단이나 대좌를 마련하여 높이 받들어 안치하였다.

불멸의 몸이 깃든 탑, 영원한 진리의 몸이 숨겨진 탑! 탑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참생명을 회복해 가지기를, 참된 나를 찾을 것을 호소하며 묵묵히 서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석탑의 나라'라고 말하여지듯 우리나라에는 천수백기의 석탑이 산재해 있다.

■ 부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 온 뒤부터는 주검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거두는 장골(藏骨)이라는 불교식 장제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도가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선종이 크게 일어남에 따라 스님들의 지위가 높아져 불탑처럼 스님의 부도도 많이 건립하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는 석등이 함께 조성되기도 하였다. 부도는 기본적으로 팔각원당형과 종형 또는 복발형의 두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륜부는 불탑보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 탑비

고승의 부도에 부속되어 석조로 조영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대왕의 석비나 묘비와 그 형태는 동일하나 불교의 유물인 까닭에 그렇게 부르고 있다.

탑비에는 고승의 일평생 행적이 건립 년월일과 함께 새겨지고 있어, 그 비문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또한 서체는 금석학의 입장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기도 한다.

탑비는 맨 밑에 구부(龜趺)가 조각되고, 그 위에 비신(碑身)이 세워지며, 상부에는 용머리가 구름과 함께 화려하게 조각 장식되어 진다.

대표적인 현존 탑비로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인 충남 보령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경남 하동 쌍계사 진감국사대공탑비 등과 고려시대의 것으로 강원도 원성의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비 등이 있다.

■ 석등

야외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석조물로 대개 사찰의 중앙에 불탑과 더불어 배치되는데, 법당이나 불탑 앞에 설치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한다는 뜻에서 광명등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법당이나 불탑앞에 외등을 설치했는데, 근래에는 좌우대칭으로 두 개의 석등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석등의 기본적인 형식은 기단을 이루는 하대와 간석, 또는 간주라고도 불리는 중대 및 상대, 그 위에 등불을 앉히는 화사석과 옥개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윗부분은 보륜과 보개, 보주 등으로 장식하였다.

■ 당간지주

당간은 당을 걸어두는 장대인데 대개 돌이나 쇠로 만들어졌다. '당'이란 본래 사찰의 문전에 걸었던 일종의 깃발과 같은 것으로서 사찰에 기도나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 당간 꼭대기에 매달던 것이었다. 또한 '당간지주'란 당간을 지탱하기 위하여 당간의 좌우에 세운 기둥으로 돌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당과 당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각 사찰에서 성대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천으로 만든 당은 내구성이 없어서 현전하는 것이 없고 당간과 그 지주만 남아 있는 것이다.

■ 석수(石獸)

돌로 만든 동물의 상(像). 흔히는 궁전이나 무덤 앞에 세워두거나 무덤 안에 놓아두는 석조동물상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무덤의 호석(護石)이라든가 석탑의 기단부 등에 놓여 있거나 부조(浮彫)되어 있는 동물조각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석수는 불교적인 조형미술품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석탑의 기단부 또는 불상대좌라든가 석탑·부도·석등·석비 등의 기단 혹은 대석(臺石)에 양각하여 장엄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 석축

돌의 자연미와 견고함을 그대로 살려 쌓은 석축은 사원건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불국사 석축은 자연석을 쌓고 인공적 받침돌을 거기에 맞추어 깎아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랭이법을 쓰고있어 많은 외국 건축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화재이다.

도필선 기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제작기법으로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



◇북한산 삼천사 마애여래입상(보물 657호). 하반신의 의문(衣文)과 광배(光背) 등을 모두 용기선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금강갑은 반야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물리칠 것을 다짐하는 곳 통도사 금강계단(국보 290호).



◇불국사 연화·칠보교 등축 축대. 목조건축의 첨차양식을 돌로 표현한 석축의 대표적 문화재이다.

봉축 현수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 격:
6m × 90c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한울기획
◆ 전화:(02)474-2040~1
◆ FAX:(02)477-2316
조흥은행 임 미 순
435-06-085707